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보성차밭 빛 축제’ 15일 팡파르

은은한 차향 머금은 ‘보성’의 겨울은 ‘빛의 낭만’에 빠져든다. 매년 겨울이 되면 푸릇푸릇한 차밭에 찬란한 ‘빛 향연’을 펼쳐며 황홀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올해로 15회째 진행되고 있는 보성차밭 빛축제는 보성군 보성을 봉산리 소재 한국차문화공원과 울포솔밭해변 일원에서 12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4일까지 31일간 겨울밤을 찬란한 희망의 불빛으로 아름답게 수놓는다.

올해는 특별히 보성군 재정명천년을 기념하여 그 정감찬 천년을 빛으로, 축제로 맞이하는 의미로 ‘천년 보성, 천송이 빛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불을 밝히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한 차밭과 차밭 능선을 따라 비탈면에 화려한

빛물결 · 은하수 빛터널 · 디지털 차나무 등 차밭서 찬란한 빛 향연 · 황홀한 볼거리 선사

차밭 빛물결과 미디어 영상, 한국차 박물관 광장에 차잎을 형상화한 디지털 차나무 LED조형물, 밤하늘을 향해 30분 간격으로 10분간 연출되는 무빙 라이팅쇼, 빛으로 꾸며진 소리청 · 공원 등과 함께 어우러져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실내정원의 특수조명과 레이저 빛연출 등으로 빛 영역도 확대돼 한층 황홀한 빛 향연이 펼쳐진다.

또한, 수백만개의 LED 전구가 빛을 밝히는 은하수 빛터널은 230m로 지난해 보다 50m나 길어졌으며, 연인 · 친구들과 함께 소망카드를 던지며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불 · 음악 ·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진 파이어판타지 공연과 실내정원의 공룡을 이용한 가든판타지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으로 구성된 문화장터는 화덕체험과 주전부리 코너, 농특산물 코너, 식당이 어우러져 추운 축제장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꾸며 소비와 놀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울포솔밭낭만의거리’에는 큐브 미디어파사드와 은하수 조형물, 공룡 · 뚝단배 조형물이 설치되어 낭만의 바다를 느끼며 걸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빛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유료화한다.

보성군민, 다른지역 만7~18세, 65세 이상 관람객, 단체, 군인(직업군인은 제외)은 3천원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야하고, 다른지역 만9세 이상은 5천원권을 사야 축제장에 입장할 수 있다.

관람객이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축제현장이나 상가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입장은 유료 같지만 축제장뿐만 아니라 보성지역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무료로 마찬가지이다.

이번 상품권구매 입장은 차밭 빛 축제를 찾는 모든 관람객이 축제장 또는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져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고흥군, 청년의 생각 정책에 반영한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7명 위촉식 개최

고흥군은 청년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문제를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고흥군은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개모집 및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고흥군 청년정책 현황 및 협의체 운영방향 설명, 위원 위촉장 수여, 2년간 협의체를 이끌어 갈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7명은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회사원,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총 3개 팀(팀당 9명씩)으로 나뉘어 ▲청년 중심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 ▲청년 문화·복지 지원 ▲청년 유동인구 유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 모니터링을 통한 청년 관련 의견을 제시, 고

흥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박병중 고흥군수는 “청년이 꿈꾸는 세상이 고흥의 미래”라며 “청년이 오가고 청년이 머무르는 하이고흥, 해피고흥! 실현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적극 목소리를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모인 위원들은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청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가 필요한 시책 개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들의 여건을 개선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내 군 단위 중 최초로 청년 전담팀(청년·일자리)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추진본부장

## 장성군 경로당, 실버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 잡다

에어컨 · 안마의자 등 지원 수준 높이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 경로당이 ‘실버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실버복지 서비스를 확대

한다는 계획이 결실을 맺었다. 장성군은 경로당을 실버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해 실버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설 수준 향상과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두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개선과 관련해 장성군은 어르신들이 사시사철 경로당을 쾌적하고 아늑한 사랑방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엔 경로당 30개소에 전신 안마의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올해 건강보조기구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안마의자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해 경로당에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엔 이상기온과 폭염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장성군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엔 복지 부서 관계자와 노인회, 체육회,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어르신들에게 친밀하면서도 접근성도 뛰어난 경로당을 실버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선 장성군의 각 부서와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경로당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장성군은 경로당에서 방문 보건, 건강생활, 진료제출, 노래교실, 요가, 웃음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뿐만 아니라 노인회와 체육회도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성=반정모 기자

## 함평군 하수도정비 예산 390억원 확보

안병호 군수, 발로 뛰며 사업 타당성 적극 설명한 결과

함평군이 3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3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안병호 군수가 월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발로 뛰며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다.

오는 2022년까지 함평천과 함평민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손불 원천지구, 학교 북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

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해 32.32km 구간의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한다.

110여원이 소요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2곳, 관거 10.8km를 정비한다.

안병호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이번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 주거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안전 · 보건교육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신안군은 8일 군청공연장에서 환경미화요원 44명을 대상으로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기계설비의 위험성,

안전보건의 첫걸음, 화재 및 폭발 예방 요령 등이며, 교육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편성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술 지원팀을 초빙, 실무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3일 환경부 주관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신안군 폐기물처리시설이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한 흑산면 환경미화요원 4명(최황수, 최성원, 김지남, 김광선)에게 군수표창을 수여하여 동기부여는 물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안군은 2016년부터 환경미화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 기관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매분기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신안군에서는 지속적인 안전 · 보건교육 실시는 물론, 편의시설 확충, 안전장비, 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으로 청소행정분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안=박응식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협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 일자리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